입 선 상 공직부문 | 김태현

초코파이

내 나이가 여덟 살이 되던,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거리는 술꾼들이 모두 빠져나간 새벽 골목처럼 황량했다. 가로수는 하나같이 앙상했고 추위는 시도 때도 없이 구멍 난 벽으로 몰아닥쳤다. 추위에 몸이 오들오들 떨려 잠을 깰 때면 언제나 이불을 둘둘 말고 잔뜩 웅크린 채 자는 동생이 보였다. 동생 옆에 자고 있어야 할 엄마는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아마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성미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삼시 세끼를 교회에서 받아오는 성미에 간장을 비벼 먹기 일쑤였으며 그마저도 없으면 다섯 식구가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국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었다. 그런 새벽이면 나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늘 엄마를 기다리곤 했다.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 남몰래 울던 날이 많았다. 이 문이 또다시 열리지 않게 될까봐 겁이 났다. 참을 수 없던 것은 추위나 굶주림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깥은 여전히 깜깜했다.

시간을 거슬러 내가 아직 일곱 살이었을 때, IMF 이후로 기울기 시작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동료의 배신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루아침에 사장님에서 실직자가 된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살았고 새벽이면 집으로 돌아와 폭력을 행사했다. 늘어나는 부채와 변한 아버지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결국, 열 밤만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어 깜깜한 밤 속으로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열 달이 지난 12월 밤눈이 내리던 현관문 앞이었다. 나는 한걸음에 달려가 엄마 품속에 안겼다. 옷자락에 묻은 눈이 정말 따듯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온 뒤 처음 며칠은 화장실에 있다가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뛰쳐나갔다. TV를 보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세수하면서도 늘 엄마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엄마가 바깥을 나갈 때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따라나섰고 집에 있을 때면 나 역시 집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친구들이 현관문을 두들겼다. 매일같이 놀던 내가 아지트에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서 온 것이었다. "나가서 좀 놀다 오지 그러니" 엄마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날 밤 엄마는 미안하다면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그 이후로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내 행동이 엄마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고 울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상 불안하였으나 내가 착한 아이가 된다면 약속한 것처럼 엄마는 절대 떠나는 일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안심시켜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엄마의 빈자리를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약속과 상관없이 현관문 너머의 어둠이 당장에라도 엄마를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깰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잠을 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새해가 밝은 날 역시 그렇게 잠이 든 것이었다. 눈을 뜨자 옆에 누워있는 동생이 보였다. 엄마가 옮겨놨으리라. 몸 위로 곱게 덮여 있는 이불의 촉감이 좋았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진 것이었다. "배고파" 잠에서 막 깨어난 동생이 눈도 뜨지 못한 채 홀린 듯 냄새를 향해 걸어갔다. 그 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떡국과 가래떡을 배불리 먹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동네 친구들과 새해부터 놀기로 한 것이다. 동생은 나와 세 살 터울로 다섯 살이 막 되던 참이었는데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니곤 했다. 때때로 나는 그런 동생이 귀찮을 때도 있었으나 차마 내칠 수 없었다. 엄마가 떠나있을 동안 어린 동생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생은 엄마가 돌아온 뒤에도 엄마가 아닌 나를 줄곧 따라다녔다.

우리들의 아지트는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아주 작은 동산이었다. 머리 위에 해가 둥둥 뜰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동네를 훤히 내려다보며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하였다. 친구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늘어놓은 뒤에 내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쳐다보았다. 새해 첫날 하게 될 우리의 놀이는 고대 유적지 탐험 놀이였다. 우리는 인근에 버려진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사못과 너트 등 버려진 물품들을 발견하며 저마다 "심봤다"라고 외쳤다. 한참 뛰어놀고 나니 우리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뱃돈도 받았을 테니 서로 돈을 모아 과자를 사 먹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해부터 집이 아닌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집안 사정은 다들 비슷했다. 그 당시 고강동의 아이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내 친구들 역시 그랬다. 그나마 머리 꽁지에 브릿지를 넣은 괜찮게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엄마가 모두 가져갔다며 돈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모은 돈은 고작 200원이었다.

우리는 식량 찾기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찬바람이 부는 가난한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지쳐가는 무리 가운데 결국 한 아이가 춥고 배고파서 더는 못 가겠다며 주저앉았다. 브릿지를 넣은 친구였다. 브릿지를 넣은 친구는 당장에라도 울 기세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밤톨처럼 생긴 친구가 큰소리로 외쳤다. "저기 슈퍼가 있어." 우리는 입을 맞춘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슈퍼가 하나 있었다. 그 슈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삭이네 아줌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만약 이삭이가 우리의 친한 친구였다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삭이를 싫어하였다. 그 아이는 집이 부유함에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으며 지독한 겁쟁이였기 때문이다. 이삭이는 장난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없는 장난감을 자랑할 경우 그것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거나 종종 훔치곤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로봇과 같이 비싼 선물을 사줄 때면 이삭이는 우리에게 들고 와서 자랑하곤 하였는데, 우리가 호기심에 만지려고 하면 때가 묻는다며 재빨리 도망가곤 하였다. 그래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이삭이가 원하면 종종 같이 놀았다. 그러다 한 번은 놀이하던 중 동생이 나와 떨어져 있자, 이삭이 그 녀석이 동생보고 엄마 없는 고아라고 놀려서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그 뒤로 이삭이는 우리와 놀기는커녕 걷다가도 내 모습이 보이면 골목으로 빠지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었다.

"초코파이 진짜 맛있는데"

브릿지를 넣은 친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가게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초코파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밤톨을 닮은 친구가 말했다.

"대장, 우리 초코파이 먹자!"

나는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고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었다.

"훔치면 돼. 이삭이가 그랬듯이."

밤톨을 닮은 친구의 대담한 발언에 우리는 모두 놀랐으나 곧 동조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그건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잠자코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삭이는 나쁜 아이야. 내 인형도 훔쳤는걸."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이삭이의 흉을 보면서 이삭이는 훔치는 것이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브리지를 넣은 친구는 자신이 읽은 임꺽정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고픈 아이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나는 친구들을 진정시키려다가 침을 흘리고 있는 동생을 보았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이번 한 번만이야. 그리고 이건 훔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빌리는 거야. 내일 세뱃돈을 가져오면 초코파이를 사서 꼭 돌려줘야 해. 다들 찬성해?"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삭이는 내 인형을 돌려주지 않았어." "물론 이삭이도 돌려줘야지. 내가 말할게."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초코파이를 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내 계획에 따라 모두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극놀이와 다를 바 없었다. 내 동생과 여자아이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약하므로 망보기 역할을 맡겼고 날쌘 밤톨 친구와 브릿지 친구에게는 초코파이를 훔치는 역할을,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하는 내가 가게에 들어가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훔치는 과정에서 아줌마가 내게 돈 없으면 자꾸 건들지 말고 나가라며 자존심을 뭉갠 것 외엔 별로 문제 될 게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공사장에 모였고 훔친 초코파이 한 상자를 분배하였다. 제일 위험한 일을 한 밤톨 친구와 브릿지 친구에게 세 개를 주고 나머지는 두개 씩 나눴다. 처음에는 다들 동의하였으나 다 먹고 난 뒤 동생이 자신은 왜 두 개밖에 안 주느냐고 더 먹고 싶다며 칭얼거렸다. 그러자 밤톨 친구가 웃으며 어디서 났는지 초코파이 한 상자를 더 꺼내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리지를 한 친구와 밤톨 친구가 각각 한 상자씩 훔쳤다는 것이다. 나는 이건 아니라며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배를 채운

뒤에도 더 원하는 것은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책에서 본 욕심쟁이들의 말로를 아이들에게 말하며 만약 우리가 이것마저 먹는다면 모두 벌 받을 것이라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먹고 싶다며 생떼를 부렸다. 나는 화가 난 나머지 자꾸 고집 피울 거면 집에나 가버리라고 따끔히 혼냈고 동생은 엉엉 울며 집으로 뛰어갔다.

동생이 떠나간 뒤 우리는 초코파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의논하였다.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런데 돌려주다가 들키면 어떡해. 우린 모두 감옥에 갈 거야."

"감옥은 안 돼! 아빠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족을 볼 수 없댔어." 브리지를 한 아이가 흥분했다.

"안 걸리면 되지."

밤톨을 닮은 친구가 자신 있게 말했으나 아이들은 이미 감옥이라는 단어로 겁에 질려있었다. 나 역시 브리지 친구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엄마를 영영 볼 수 없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이 떠올랐다. 나는 일단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초코파이를 여기 묻어두고 내일 다시 모이자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브리지 친구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초코파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공사장을 돌아가 초코파이를 다시 꺼냈다. 나 혼자서라도 다시 되돌려 놓고 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으로 이삭이네 슈퍼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엄마였다. 엄마는 이삭이네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를 보자 세모꼴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내게 동생에게 다 듣고 왔다며 너 말고 또 누가 이 일에 가담했냐고 물었다. 나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만 연신 말할

뿐이었다. 계속 누가 더 있느냐고 묻는 말에 아무 말 하지 못하자 엄마는 그 길로 나를 끌고 경찰서까지 갔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에게 여기 도둑질을 한 아이가 있으니 어서 감옥에 보내라고 말했다. 처음에 경찰 아저씨는 웃으며 나를 질타하다가 엄마가 진심으로 말하자 당황하는 눈치였다. 결국, 나는 울음이 터진 채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 날 엄마는 방에서 서럽게 우는 내게 뚝 그치라고 말한 뒤 현관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나중에 현관문이 열렸을 때에 양손 가득 찬거리와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든 엄마가 보였다. 동생은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초코파이를 마구 먹어댔으나 나는 괜히 더욱 서러워져서 단 한 개의 초코파이도 먹을 수 없었다. 엄마를 끌어안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나중에서야 안 것은 엄마가 그 날 배고픈 우리를 위해 결혼반지를 팔고 오셨다는 사실이었다.

그 뒤로 나는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유혹의 갈래 길에서 항상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정말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것들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바늘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소도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청렴이라는 단어는 결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절제한다면 큰 유혹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건네주고 싶다. 청렴韓세상